◈ 한자 시험 대비 빈출 문제 (4급)

1.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1) 勸奬 (2) 未達 (3) 新鮮 (4) 破損
(5) 調律 (6) 赤血球 (7) 素望 (8) 進退
(9) 歡迎 (10) 容積 (11) 盜聽 (12) 發議
(13) 收益金 (14) 拒絶 (15) 放置 (16) 刻印
(17) 蓄財 (18) 迎入 (19) 遊覽 (20) 厚板

2. 다음 한자의 訓과 音을 쓰시오.

(1) 兩 (2) 階 (3) 暇 (4) 辭 (5) 放
(6) 得 (7) 單 (8) 擇 (9) 飛 (10) 勉
(11) 儒 (12) 官 (13) 季 (14) 急 (15) 社
(16) 好 (17) 折 (18) 伐 (19) 辯 (20) 逆

3. 다음 글 가운데 괄호 친 한자어를 한자로 쓰시오.

(1) 이제 (평생)교육은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2) (구습)에 젖어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한다.
(3) (유명)한 식당들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도 없다.
(4)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에 좋다.
(5)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

4. 다음 訓과 音을 지닌 한자를 쓰시오.

(1) 재주 기 (2) 큰 덕
(3) 재앙 재 (4) 무리 류
(5) 물끓는김 기

5. 다음 한자어의 반대 또는 상대되는 한자를 쓰시오.

(1) ( )↔ 終 (2) 溫 ↔( ) (3) 長 ↔( )

6. 다음 한자어와 뜻이 비슷한 한자나 한자어를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

(1) 京 - ( ) : ① 都 ② 道 ③ 絶 ④ 然
(2) 停 - ( ) : ① 之 ② 餘 ③ 止 ④ 工
(3) 區 - ( ) : ① 高 ② 分 ③ 民 ④ 設

7. 다음 빈 칸에 들어갈 한자를 적어 사자성어를 완성하시오.

(1) 忠言逆( ) (2) ( )花流水 (3) 興盡悲( )

8. 다음에서 장단은 관계없이 동음이의어를 정자로 쓰시오.

(1) 用器 - ( ) : 씩씩하고 굳센 기운
(2) 領主 - ( ) : 한 곳에 영원히 삶
(3) 新任 - ( ) : 믿고 일을 맡김

9. 다음 한자어의 뜻을 고유어(순수 우리말)로 조건에 맞게 빈칸을 채우시오.

(1) 朝夕 - 아침과 ( )(조건:2음절)
(2) 飛上 - ( ) 오름(조건:2음절)
(3) 校舍 - ( )의 건물(조건:2음절)

10. 다음 한자의 약자를 쓰시오.

(1) 舊 (2) 廣 (3) 擧

◉ 재미있는 한자성어 ◉

풍수지탄(風樹之嘆)

(바람 풍, 나무 수, ~의 지, 탄식할 탄)
직역 : 바람과 나무의 탄식.
의역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뉘우침을 일컫는 말.

풍수지탄(風樹之嘆)이란 말은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는 뜻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뉘우침을 일컫는 말이다. "나무는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樹欲靜而風不止], 자식은 봉양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子欲養而親不待]."는 옛말에서 나왔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쉴 새 없이 분다. 자식은 봉양하고 싶어도 어버이는 돌아가시고 없다. 나무가 바람 탓만 할 수 없듯이, 자식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공경으로 모셔야 한다. 부모 생전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다. 뒤늦게 철들어 효도를 하려 하여도 부모는 이미 내 곁을 떠나고 계시지 않는다. 정철은 이런 안타까움을 다음과 같이 시조로 노래하였다.

어버이 살았을 제 섬길 일을 다 하여라
지나간 뒤에는 애달프다 어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 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상명지통(喪明之痛)

(죽을 상, 밝을 명, ~의 지, 아플 통)
직역 : 눈이 멀 정도로 슬프다는 뜻.
의역 : 아들이 죽은 슬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를 땅에다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였다. 상명지통(喪明之痛)이란 옛날 자하(子夏)가 아들이 죽자 상심한 나머지 밤낮으로 울다가 마침내 눈이 멀고 말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상(喪)은 상실(喪失), 즉 잃었다는 뜻이고 명(明)은 밝음이니까 시력(視力)을 상실할 만큼의 아픔이 상명지통이다.

☆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

봄의 절기들-입춘(立春), 우수(雨水), 경칩(驚蟄), 춘분(春分), 청명(淸明), 곡우(穀雨)

봄 '春'의 자의(字義)는 햇볕을 받아 풀이 돋아나오는 모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화(神話)적 해석으로도 봄은 시작과 풍요, 부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곧 계절의 시작, 한해의 시작, 다시 농사 준비의 시작으로까지 봄은 모든 만물(萬物)이 생명의 근원을 다시 얻어 소생(蘇生)하는 계절인 것이다.

봄은 절기(節氣)상으로 입춘(立春)을 시작으로 곡우(穀雨)까지 왕성한 생명력의 근원을 바탕으로 한다. 때문에 희망과 소생의 미학(美學)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봄은 오행(五行)으로 볼 때 '목(木)'에 해당하고 방위는 '동(東)', 오색(五色)은 청(靑)에 해당된다. 또한 봄 처녀의 계절로 표현되듯 여자의 계절로도 불린다.

立春 (입춘)

立春은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는 음력(陰曆) 정월(正月) 절기(節氣; 매달 상순에 드는 절기)로 태양이 황경(黃經; 춘분점에서부터 황도를 따라 잰 천체의 각도 거리) 315도에 위치할 시기이고 양력(陽曆)으로는 2월 4일경이다.

입춘 전날은 절분(節分)으로 불리며 철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해넘이'라고도 불리면서 이 날 밤 콩을 방이나 문에 뿌려 마귀를 쫓고 새해를 맞이한다.

특히 입춘날에는 '입춘대길(立春大吉)' 등의 입춘방(立春榜)을 문에 붙이고, 입춘절식(立春節食)이라 해서 고유의 절기 때 먹는 음식인 절식(節食)으로 입춘날에 먹는 햇나물 무침이 있다.

유래는 경기도 내의 산이 많은 6개의 고을{양평(陽平), 지평(砥平), 포천(抱川), 가평(加平), 삭녕(朔寧), 연천(連川)}에서 움파{동총(冬蔥)}, 멧갓, 승검초 등 햇나물을 눈 밑에서 캐내 임금께 진상하고 궁궐에서 겨자와 함께 무쳐 "오신반(五辛盤)"이라 하여 수라(水刺)상에 올렸다. 이는 겨우내 결핍된 신선한 야채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서도 이를 본받아 입춘절식(立春節食)을 먹는 풍습이 생겼다.

옛 문헌에 입춘 기간에는 동풍(東風)이 불어 언 땅이 녹고, 동면(冬眠)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어류(魚類)가 얼음 밑을 다닌다고 한다.

雨水 (우수)

雨水는 입춘(立春)과 경칩(驚蟄) 사이에 있는 음력(陰曆) 정월 중기(中氣; 매달 중순에 드는 절기)로 태양이 황경(黃經) 330도에 이른 때이고 양력(陽曆)으로는 2월 19일경이다.

봄을 알리는 단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고 겨우내 얼었던 대지가 녹아 물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우수(雨水)라 한다.

기후는 날씨가 풀려 봄바람이 불어와 "우수 경칩에 대동강(大同江) 물이 풀린다."라는 옛말이 전해온다.

옛 문헌에 우수 기간에는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늘어놓고,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며, 초목에 싹이 튼다고 한다.

驚蟄(경칩)

驚蟄은 우수(雨水)와 춘분(春分) 사이에 있는 음력(陰曆) 2월 절기(節氣)로 태양이 황경(黃經) 345도에 위치한 때이고 양력(陽曆)으로는 3월 6일경이다.

이 무렵은 날씨가 따뜻해져 초목(草木)의 싹이 돋고 동면(冬眠)하던 동물이 깨어 꿈틀 대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이 정해졌다.

이 때의 풍속(風俗)에는 개구리 정충(精蟲)이 몸을 보(保)한다고 해서 개구리 알을 잡아먹고, 흙 일을 하면 탈이 없다 해서 담을 쌓거나 벽을 바르는 일을 하고, 이 날 보리 싹의 성장상태로 보리 농사의 풍흉(風凶)을 점쳤다고 한다.

春分(춘분)

春分은 경칩(驚蟄)과 청명(淸明) 사이에 있는 음력(陰曆) 2월 중기(中氣)로 태양이 황경(黃經) 0도에 위치하면서 천구(天球)의 적도 위를 남에서 북으로 끊고 지나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며 양력(陽曆)으로는 3월 21일경이다.

곧 태양은 2분(二分 :춘분.추분)에 적도 바로 위에 있게 되고 2지(二至 :하지,동지)에는 최남{북회귀선}, 최북단{남회귀선}에 있게 된다.

옛 문헌에 춘분 기간에는 제비가 날아오고, 우레소리가 들리며, 그 해 처음으로 번개가 친다고 한다.

淸明 (청명)

淸明은 춘분(春分)과 곡우(穀雨) 사이에 있는 음력(陰曆) 3월 절기(節氣)로 태양이 황도 15도에 도달한 날이 입기일(立氣日)이고 양력으로는 4월 5일경이다.

날씨를 이야기할 때 '청명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말고 깨끗한 기후의 시기이다.

보통 중국 제(齊)나라의 개자추(介子推)라는 인물에서 유래된 한식(寒食)날이 이 날을 전후해서 있어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라는 속담도 있다.

옛 문헌에 청명 기간에는 오동나무가 꽃 피기 시작하며, 들쥐 대신 종달새가 나타나고, 무지개가 처음 보인다고 한다.

穀雨 (곡우)

穀雨는 청명(淸明)과 입하(立夏) 사이에 있는 음력(陰曆) 3월 중기(中氣)로 태양이 황경 30도에 이른 때이고 양력(陽曆)으로는 4월 20일 경이다.

의미는 봄비가 내려 백곡(百穀)이 윤택해진다는 것이고 농가에서는 못자리를 마련하고 한 해 농사의 준비가 시작된다.

한자 만화 코너/한통이의 어린이 한자교실(스물네번째 마당)

◆ 다음 글을 읽고 ( )에 들어갈 한자를 〈보기〉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세요.

〈보기〉

① 冬 ② 班 ③ 雪 ④ 病

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아라.
나. (반)장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다. 피겨스케이트는 (동)계스포츠의 꽃이다.
라. 하얀 (설)원을 달리는 사슴처럼~

한통이의 어린이 한자교실

◆ 다음 빈 칸에 알맞은 한자나 훈음을 쓰시오.

嚴		雪	
	겨울 동		찰 한
	兩		用
이를 성		나눌 반	

通 한자통 hanjatong.com

◈한자 시험 대비 빈출 문제(4급)정답◈

1. (1) 권장 (2) 미달 (3) 신선 (4) 파손 (5) 조율 (6) 적혈구 (7) 소망 (8) 진퇴 (9) 환영 (10) 용적 (11) 도청 (12) 발의 (13) 수익금 (14) 거절 (15) 방치 (16) 각인 (17) 축재 (18) 영입 (19) 유람 (20) 후판
2. (1) 두 량 (2) 섬돌 계 (3) 틈 가 (4) 말씀 사 (5) 놓을 방 (6) 얻을 득 (7) 홑 단 (8) 가릴 택 (9) 날 비 (10) 힘쓸 면 (11) 선비 유 (12) 벼슬 관 (13) 계절 계 (14) 급할 급 (15) 모일 사 (16) 좋을 호 (17) 꺾을 절 (18) 칠 벌 (19) 말씀 변 (20) 거스를 역
3. (1) 平生 (2) 舊習 (3) 有名 (4) 規則 (5) 時間
4. (1) 技 (2) 德 (3) 災 (4) 類 (5) 汽
5. (1) 始 (2) 冷 (3) 短
6. (1) ① 都 (2) ③ 止 (3) ② 分
7. (1) 耳 (2) 落 (3) 來
8. (1) 勇氣 (2) 永住 (3) 信任
9. (1) 저녁 (2) 날아 (3) 학교
10. (1) 旧 (2) 広 (3) 拳